

제9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he 9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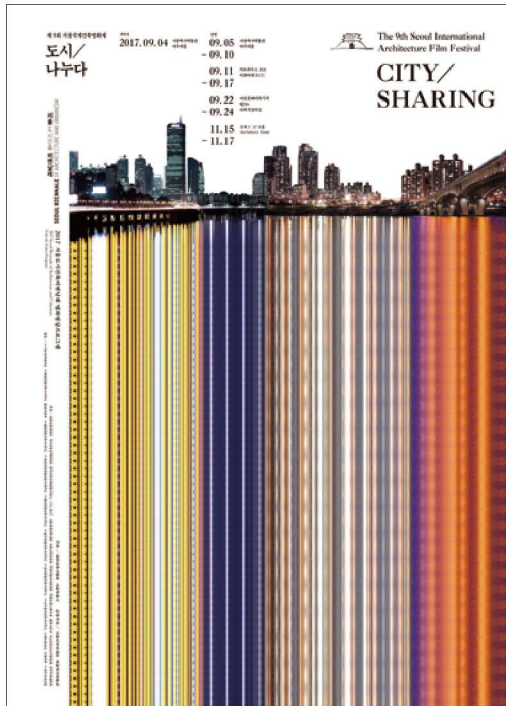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역사박물관이 함께한 제9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SIAFF)가 17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9월 24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제9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도시/나누다'(City/Sharing)라는 주제 아래 총 3차에 걸쳐 이뤄졌다. 상영작은 '마스터 앤 마스터피스', '건축 유산의 재발견', '어번스케이프', '비온드'의 4개 섹션으로 나뉘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뤄진 상영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영화상영프로그램 '픽션/논픽션:도시, 일하고 나누고 사랑하다'란 주제를 가지고 '특별전'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21개국 34편으로 역대 가장 많은 작품수를 자랑했다. 제9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최초 개봉(프리미어)하는 영화들은 총 16 작품이며, 그 중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봉하는 영화는 13편이나 있었다.

개막식은 9월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김용필 아나운서, 영화제 홍보대사인 헬로비너스 나라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조직위원장인 정태복 건축사(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배형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건축영화제 명예대회장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영상을 통해 개막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아파트 생태계'는 서울건축영화제에서 전세계 최초 개봉하는 '월드 프리미어(world premiere)' 상영작 중 하나이며, 전작 '말하는 건축가', '말하는 건축 시티:홀'을 만든 정재은 감독의 최근작인 만큼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영화제는 1차 서울역사박물관(9월 5일~10일), 2차 이화여자대학교 ECC 아트하우스 모모(9월 11일~17일), 3차 마포 문화비축기지(9월 22일~24일)에 걸쳐 이뤄졌으며, 상영 기간 내에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HAF, Host Architect Forum)'과 '관객과의 대화(GT, Guest Talk)'가 함께 진행됐다. 올해 영화제를 찾은 관객은 개막식 포함 4,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 개막식 사회를 보는 영화제 홍보대사 나라(헬로비너스)
2. 아트하우스 상영관을 꽉채운 관객석
3. 영화제를 참여하기 위해 아트하우스 모모를 찾은 관객들
4. 9월 9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포럼 '서울에 담은 영화'
5. 9월 22일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된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